칠곡 합성수지 공장 “화재발생”

공장 · 완제품 소실 1억5000만원 피해 ... 인명피해 없이 진화

3월16일 오후 3시30분경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의 한 합성수지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40분만에 진화됐다.

인명피해는 없었으나 493㎡ 규모의 공장과 완제품 수지가 불에 타 소방서에서는 약 1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.

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서 발화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3/17>